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들의 이 생은 아주 귀중한데, 왜냐하면 지금 이때에는 아버지가 직접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렉스(락시-목적) 비누로 너희의 옷들을 세탁한다.

질문: 알라를 세계의 창조자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느냐?

대답: 그들에게 물어봐라: 알라가 세계를 창조했을 때, 그에게는 여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알라를 위한 여성이었습니까? 당신들이 “신, 아버지”라고 말하니, 어머니도 역시 필요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이 깊은 비밀을 아주 잘 안다. 알라를 위한 여성은 이 브라마이다. 그는 너희의 나이든 어머니이다. 인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노래: 누가 이 연극을 만들고서 숨어버렸는가?

옴 산티. 인간은 아무도 이 노래의 정확한 뜻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연극을 쓴 이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마치 경전들이 쓰였듯이, 단지 노래들을 작곡했을 뿐이다. 그들은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베다가 종교 경전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것들은 경전이라고 불리지만, 종교 경전이라고는 불리지 않는다. 종교의 경전들에는 뭔가 유익함이 들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 경전의 의미를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 누군가 그것으로 종교를 세우는 것이 경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베다들과 우파니샤드들은 어떤 종교에 속하는 경전들입니까? 누가 그 종교를 세웠습니까? 그것들에서는 아무 종교도 나오지 않았다. 다양한 여러 종교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이미 설명되었다. 나무의 주요한 부분은 밀동이며, 그 다음에 큰 가지들과 그 밖의 잔가지들이 있다. 종교의 경전이며 모든 경전들의 보석인 기타가 밀동이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이다. 이슬람, 불교, 기독교 등은 전부 다 칼파 나무의 가지들이다. 기타에는 “인간 세계의 나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나무의 중요한 의미가 이제 너희의 시각에 들어있다. 주된 부분은 밀동이다, 즉 밀동이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이다. 이 나무는 반얀 나무에 비유된다. 그 나무는 아주 크다. 나무가 늙으면 밀동은 썩지만 가지들과 잔가지들은 남는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나무의 밀동, 즉 신인 종교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만일 신이 24가지의 몸으로 태어난다면, 그는 편재할 수 없다. 만일 그가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이 나무는 무척 크고, 밀동이 없다. 자기가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황금시대를 수십만 년 전으로 후퇴시켜 놓았다. 이것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만들었다. 인간들 모두가 불행하다.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행복이 까마귀의 똥과 같지만, 그곳에서는 행복이 대단히 크다는 그 차이가 산야시들의 시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을 모른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너희를 크나큰 행복으로 데려간다. 그는 지금 이때에 그의 역할을 행하며 모든 것을 다 행한 다음에 숨어버린다. 사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행한다. 이슬람교도, 불교도 등, 모두가 숨을 것이고, 그들은 즉 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도 역시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오직 인간들에게만 설명된다; 동물들에게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삶은 모든 삶 중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불린다. 어떤 탄생이냐? 인간의 피부는 쓸모가 없다고 일컬어진다. 그 다음에는 인간으로 태어난 생이 가장 높다고 불린다. 사실 너희의 이번 생이 가장 높은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너희를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의 이번 생은 가장 낮다. 전에는 너희도 역시 아주 더럽고 불순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바바가 지금 지식의 렉스(목적) 비누로 우리의 옷을 세탁하면서 말한다. 자, 이제 너희의 아버지를 기억해라. 세상의 누구도 아버지를 모른다. 오직 아버지를 알 때에만 그들이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쉬바와 또 브라마에게 속할 때만, 그들은 손주라고 불릴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브라민이 있다. 하나는 입으로 태어난 자녀들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브라마의 입으로 태어난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이다. 누가 브라마의 아버지이냐? 쉬브 바바이다. 아무도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는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분이며, 또한 너희의 구루이기도 하다. 그가 지금 직접 너희 앞에 있으며, 그 다음에 숨어버릴 것이다. 그는 불순한 세계를 정화하고, 신인 종교를 세운 다음에 모든 이를 해방의 나라로 데려간다. 그가 너희에게 21생 동안의 행복을 주었으니 너희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할 수 있겠느냐? 바바는 어쨌든 너희를 끊임없이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나 너희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크리슈나의 나라는 행복의 나라라고 불린다. 사람들은 나라얀의 어린 시절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크리슈나의 결혼을 묘사한다. 그가 라데와 결혼했을 때, 그들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그들은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락쉬미와 나라얀에 관해서 모른다. 아무도 그들의 전기를 모른다.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이해한다. 오직 사이클을 완전히 한 바퀴 돌아온 이들, 수백만 중에서 소수만이 나올 것이다. 신봉을 행하는 이들이 송배받을 가치가 있는 데서 처음에 송배자가 되는 이들이라는 것을 너희는 안다. 모두가 신봉자들이다. 인간들은 겨자씨와 같다. 가엽고 무력한 사람들이 모두 죽음이라는 분쇄기에 갈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너희 자녀들은 지금 아주 큰 지각을 받았다. 84생의 사이클을 너희의 지각에 간직하는 것은 무척 쉽다. 우리는 지금 브라민이고, 다음에는 신인들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84생을 취할 것이다. ‘함 소’의 의미도 역시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되어 왔다. ‘함 소, 소 함’은 오직 여기에서만 노래로 불린다. 다른 종교에는 이 표현이 없다. 그들은 ‘옴’을 신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석한다. 사실 ‘옴’은 ‘영혼인 나’라는 뜻이다. 그들은 “영혼이 지고의 영혼이다”라는 틀린 말을 한다. 좋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나는 몸이 아니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은, “영혼인 나, 그리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영혼이고, 나는 이 몸을 임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나의 신발이 아니다. 나는 발을 갖지 않는다. 나의 발은 송배받을 수 없다. 크리슈나에게는 발이 있지만, 나는 발이 없다. 나는 무체인 한 분이다. 사실 영혼들도 역시 무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84생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온다. 나는 몸을 갖지 않는다; 나는 몸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무체가 되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한다. 너희들은 바바가 왔다는 것을 안다. 그의 역할이 무엇이냐? 불순한 세계를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체인 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몸에 들어올 것이다. 인간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왕자인 슈리 크리슈나의 이름을 언급해 놓았다. 슈리 크리슈나가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었겠느냐? 너희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남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사람들은 타고르 기타 등을 무척 많이 찬양했다. 사실은 크리슈나에 대한 찬양도 없다. 크리슈나를 만든 분은 쉬브 바바이다. 이것은 크리슈나의 여러 생 중에서 마지막 생이다. 바바가 말한다: 내가 어떻게 어린 아이의 몸을 통해서 여기에 앉아 말하겠느냐? 틀림없이 성숙한 수레가 필요하다. 드라마에 따라서 나의 수레는 정해져 있다. 다음 사이클에 내가 다른 수레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브라마를 통해서만 창조가 일어날 것이다. 지난 사이클에도 역시 너희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은 브라마를 통해서 너희의 유산을 차지했었다. 아버지가 지금 말한다: 다른 모든 이에게서 떨어져서 너희 자신을 오직 나와만 연결해라. 나의 것은 한 분 쉬바뿐이고, 다른 누구도 없다. 당신은 어머니이며 아버지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척 많이 찬양 받는 분 앞에 직접 있다. 그저 이것에 대해 생각만이라도 해봐라. 누가 진정 너희를 창조했느냐? “알라가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한다. 그러니 알라를 위해서 반드시 여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알라는 무체이고, 그러니 그의 여인은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은 신, 아버지에게 관해서 말하고, 따라서 아버지는 언제나 창조자이다. 만일 어머니가 없다면, 어떻게 그가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오직 자녀를 두었을 때만 그는 아버지라고 불린다. 아무도 신, 아버지를 위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런 것은 아주 심오한 내용이다. 아담과 비비, 둘이 있다. 만일 이 사람(브라마)이 아담이라고 불린다면, 사라스와티는 비비라고 불릴 수 없다. 그녀가 만일 비비라면, 그녀의 어머니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 아버지 혼자 여기 앉아서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브라마가 나의 아내이다. 나는 브라마의 입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을 창조한다. 나는 브라마의 몸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자가담바가 그들을 돌보는 도구가 되었다. 누가 아디 데브 브라마와 자가담바 사라스와티이나? 이치로 따져보면 그녀는 브라마의 딸이다. 그러니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겠느냐? 그것은 브라마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니 그는 나이든 어머니이다. 그 다음에 마마와, 그리고 바바도 역시 너희를 돌본다. 사라스와티가 1등을 차지한다. 자가담바는 무척 많이 칭송된다. 너희들이 브라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너희는 이해했다. 우리는 신의 품안에 들어왔다. 이것에도 역시 두 가지 유형, 즉 친자녀와 의붓자식이 있다. 모두가 한 어머니의 자녀들이니 친자녀나 의붓자식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친자녀’, ‘의붓자식’이라고 하는 것이냐? 친자녀는 순수하게 지낼 것이며, 유산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므로 오직 순수한 이들만이 옥좌를 차지하는 상속자가 된다. 의붓자식들은 백성들이 된다. 많은 이들이 친자녀가 되겠지만, 그들 중에도 역시 등수가 있다. 너희들 각자가 노력하는 만큼 어머니와 아버지의 옥좌에 앉을 것이다. 마마와 바바가 옥좌에 앉으니 너희도 역시 옥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등수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요가의 순례이다. 너희들은 바바를 기억하며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고 남들을 너희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 너희들은 남들을 너희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딸들은 소개를 한 다음에 그들을 아버지에게 데려와서 그가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게 한다. 바바는 어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완전한 유산을 차지하고, 다른 모든 이에게서 애착을 없애고 그들 자신을 한 분과만 연결할 것인지 본다. 너희들은 바바가 우리를 세계의 주인으로 만드는 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너희를 천국의 주인들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태양 왕조나 달 왕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직접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숨겨버린다. 그는 반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몸조차 갖지 않는다. 그는 단 한번만 온다. 너희들은 되풀이해서 하나의 의상을 벗고 다른 의상을 취한다. 나는 환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참으로 분명하게 설명한다. 너희들이 전에는 지각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집에 앉아서 나 홀로 전진하는 동안에 그냥 우연히 바바가 나에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는 알아차렸다. 지금은 나날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지각에 자리 잡는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저는 바바의 7일된 자녀입니다. 저는 바바의 2개월 된 자녀입니다. 이 지식은 1초 만에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의 수가 참으로 많다. 다른 영적인 집회에는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많지 않다. 프라자피타 브라마와 자가담바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부부)가 아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떻게 그 많은 자녀들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들 모두가 욕신의 자녀들일 수는 없다. 지난 사이클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속해서 유산을 차지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묘목이 계속 심어진다. 이것이 정원이다, 그렇지 않느냐? 신인 종교의 꽃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들은 모두 가시와 같다, 그들은 찌른다. 이것은 가시들의 세상이다. 아버지가 와서 가시들을 꽃봉오리로 바꾸고, 또 꽃봉오리를 꽃으로 변화시킨다. 슈리마트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추락한다. 어떤 이가 악덕에 빠졌다는 것을 바바는 이해한다. 너희들은 지금 불순한 데서 순수해지고 있다. 바푸 간디지도 역시 정화자를 기억하곤 했었다. 그는 세계의 전능한 권위의 왕국을 소망했다. 오직 아버지만이 그것을 세운다. 우리가 이제 악마, 칸스의 이 나라에서 크리슈나의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바라트에 황금시대가 있었다. 그것은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이었다. 이것은 5천년의 일이다. 5천년보다 더 오래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수십만 년이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보아라, 너희의 나이든 어머니들이 구르가웅(하리아나 주의 도시)에서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에게 왔구나, 너희는 그 분에게서 유산을 받을 것이다. 너희 나이든 어머니들을 보니 아버지도 역시 기쁘다. 너희들은 5천년 전에도 와서 각자의 유산을

차지했었다. 모든 것이 노력에 달렸다. 너희 나이든 어머니들은 지식을 그다지 많이 취할 수는 없다. 이 다다는 늙었지만 공부를 아주 잘한다. 젊은 어머니인 사라스와티도 역시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 브라마푸트라 강이다. 틀림없이 그가 더 많이 공부할 것이다. 이 늙은 다다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 저 사람은 딸이다. 이것은 나이든 이들에게는 아주 쉽다. 계속 바바를 기억해라; 오호! 쉬브 바바시여, 제 자신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당신은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그게 전부이다! 그런 행복 속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탄 배가 건너갈 것이다. 언제나 쉬브 바바가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이 사람은 놔둬라. 언제나 쉬브 바바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너희들의 지각의 요가가 쉬브 바바에게 가기 때문에, 너희의 죄는 계속해서 없어질 것이다. 마마도 역시 쉬브 바바의 말을 잘 듣고 나서 설명한다. 언제나 오직 쉬브 바바만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계속 없어질 것이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기억과 사랑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옥좌에 앉은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수해지겠으며 참된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해라. 다른 모든 이에게서 떨어져서 한 분에게만 너희 자신을 연결해라.
2. 남들을 너희 자신과 비슷하게 만드는 봉사를 해라. 가시에서 꽃봉오리가 되고, 봉오리에서 꽃이 되어 남들을 꽃으로 만들어라. 새로운 나무의 묘목을 심어라.

축복: “나”라는 의식을 끝내고 모든 상황에서 입으로 또 마음으로 “바바, 바바”라 함으로써 성공의 화신이 되어라.
영혼인 너희들은 다른 수많은 영혼들에게 열성과 열의를 복돋아주는 도구들이므로 너희는 결코 “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했어”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바바가 너를 도구로 만들었다. “나”라 하지말고 “나의 바바”라고 해라.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말했지”가 아니다. 바바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만들었고 바바가 그 일을 했다. 그러면 너희는 성공의 화신이 될 것이다. 너희 입에서 “바바, 바바”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수록 너희는 더 많은 수의 남들이 바바에게 속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너희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바바 한 분 뿐 얘기가 모든 이의 입에서 나오게 해라.

솔로건: 합류시대에 너희의 몸, 마음, 부를 가치 있는 방식으로 쓰고 너희의 보물을 늘리는 것이 지각이 있는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